

KMI 주간해운시장 포커스

발 간 일 2025년 2월 10일
감 수 이호춘 해운연구본부장

발 행 인 김종덕 원장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주간뉴스	01	건화물선	04	컨테이너선	15
탱커선	17	중고선	21	주요 해운지표	23

건화물선 지난주 케이프선 운임은 전주 대비 7.0% 하락한 6,915달러/일 기록

컨테이너선 지난주 '컨' 운임지수(SCFI)는 149p 하락한 1,897p를 기록

탱커선 지난주 유조선 운임지수(WS)는 전주 대비 6.8p 상승한 67.6p를 기록

황수진 해운시장연구실장 / zin@kmi.re.kr | 051-797-4635

류희영 해운경영금융연구실장 / hyryu@kmi.re.kr | 051-797-4915

최영재 연구원 / cyj17@kmi.re.kr | 051-797-4608

최건우 해운정책연구실장 / ak8102@kmi.re.kr | 051-797-4638

김병주 전문연구원 / bjkim17@kmi.re.kr | 051-797-4628



1. 주간뉴스

2024년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

- ▶ 2024년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 2년 연속 부진한 성장 이후 강력한 반등을 보임
 - CTS(Container Trade Statistic)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선사들이 운송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대비 6.2% 증가한 1억 8,320만 TEU를 기록함
 - CTS는 2025년 전망에 대해 홍해 위기 및 글로벌 관세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지만 남미, 중앙아메리카 및 오세아니아 등 지역에서 강력한 성장세가 나타나 긍정적인 신호가 보인다고 밝힘
- ▶ 2024년 물동량 강세를 보인 주요 항로는 아시아-유럽 및 아시아-북미 항로와 같은 장거리 노선 항로에서 인상적인 성장세를 기록함
 - 2024년 아시아-북미 항로 물동량은 2023년 대비 약 14% 증가하며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수입 관세를 피하거나 재고확보를 위한 조기 선적량 증가가 두드러짐
 - 2024년 아시아-유럽 항로의 물동량 또한 전년대비 8.8% 증가하며 2023년(7.9%)에 이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냄

자료: <https://www.lloydlist.com/LL1152510/Container-volumes-rally-in-2024>

최건우 부연구위원

051-797-4638, ak8102@kmi.re.kr

머스크, 통합물류전략에 대한 확고한 입장 유지

- ▶ 머스크 CEO 빈센트 클릭(Vincent Clerc)은 머스크의 통합 물류 청사진을 재확인하며 End-to-End 역량 개발이 전략 시작 당시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함
 - 빈센트 클릭은 글로벌 물류 통합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그룹의 전략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며, 이 방향이 현 시점에서 더욱 타당하다고 강조함
 - 그는 지난 5년간 해운 부문의 비정상적인 수익성과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이 물류 및 서비스 부문에 성과를 가리는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머스크의 전략적 방향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올바른 선택이라고 주장함
- ▶ 또한 지금까지 통합물류전략의 진행 속도가 더디다고 인정하면서 물류 서비스의 중간 및 최종 단계에서 여전히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힘
 - 선대의 규모가 커진다고 수익성이 향상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유럽의 경쟁사인 MSC 및 CMA CGM이 추진하는 대규모 신조 발주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필요한 시점이 오면 물류나 터미널 부문에서 M&A를 고려할 것이지만, 단순히 해운 부문에서 규모를 키우는 방식은 수익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임

자료: <https://www.lloydlist.com/LL1152489/Maersk-chief-doubles-down-on-integrator-strategy>

김병주 전문연구원

051-797-4628, bjkim17@kmi.re.kr



1. 주간뉴스

원료탄, 미-중 상호 관세 부과로 공급 과잉 초래 가능성

- ▶ 에너지 시장정보업체 플랫츠(Platts)는 중국이 2025년 2월 10일부터 미국산 원료탄에 대해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 시장에서 미국산 원료탄의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전망이다고 보도함
 - 플랫츠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부터 미-중 간 상호 관세 부과 상황을 예상하고 보호 조항을 마련하는 등 리스크 방지를 위한 움직임이 보였으며, 춘절 연휴 이전부터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보도함
 - 미국산 원료탄 판매업체들은 중국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한국 등 대체 시장을 찾기 위해 분주한 상황이나 목적지 변경에 따른 추가 물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됨
- ▶ 미국산 원료탄이 인도 및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기존 호주산 원료탄 수요를 대체할 경우 호주산 원료탄은 다시 중국으로 유입될 것이며, 이에 따라 호주산 원료탄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최근 낮은 마진을 겪고 있는 인도와 동남아시아 철강업체들은 미국산 원료탄이 충분히 저렴한 가격에 제공된다면 이를 구매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며, 인도 시장에서는 미국산 원료탄 매물이 급증함
 - 일부 인도 철강업체들은 미국산 원료탄의 공급 과잉이 심화되면 원료탄 가격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가격 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미국산 원료탄을 적극적으로 매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음

자료: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us-china-tariff-war-may-create-glut-of-us-coking-coal-cargoes-in-asia/>
최영재 연구원

051-797-4608, cyj@kmi.re.kr

소맥, 2025년 전 세계 수입량 감소 전망

- ▶ 국제 통신사 로이터(Reuters) 통신은 주요 수입국들의 경제 성장 둔화, 강달러 영향, 현지 곡물 생산 증가로 인해 2025년 전 세계 소맥 수입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며, 소맥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것이라 보도함
 - 소맥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2025년 상반기 소맥 수입량은 지난해 대비 절반 이하를 기록할 것이라 예상되며, 세계 2위 수입국인 인도네시아와 3위 수입국인 이집트 역시 수요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대해 호주 커먼웰스(Commonwealth) 은행 측은 중국과 같은 주요 소맥 수입 시장에서 소맥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수입 수요를 감소시키는 구조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음
- ▶ 2024년 중국의 소맥 작황은 기상 조건의 영향으로 기록적인 생산량과 품질을 달성했으며, 이로 인해 올해 3월 소맥 수입량은 최근 몇 년간 같은 시기 대비 3분의 1 수준인 약 100만 톤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 로이터 통신은 인도네시아의 쌀 생산량이 회복될 전망으로 수입 밀가루 대신 현지 쌀가루를 다시 사용할 것이라 예상되며, 강달러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구매력이 감소하여 소맥 수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도함
 - 이집트 또한 경제 성장 둔화로 심각한 재정 문제를 겪고 있어 소맥 구매를 위한 아랍 국가들의 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주요 소맥 수입국인 이라크 역시 자국 소맥 생산량 확대로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 발표함

자료: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global-wheat-import-demand-dented-by-local-output-economic-woes/>

최영재 연구원

051-797-4608, cyj@kmi.re.kr



1. 주간뉴스

유럽 및 아시아 정유사들, 미국의 석유 관세로 반사이익 전망

- ▶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산 원유에 관세 25%, 멕시코산 원유에 관세 1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으로 원유 조달 비용이 상승하여 미국 정유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유럽 및 아시아 정유업체의 반사이익이 예상됨
 - 에너지 컨설팅업체 볼텍사(Vortexa)는 미국의 경유 수출이 감소하면 유럽 정유업체들의 마진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므로 유럽 정유업체들에게는 긍정적이나 유럽 소비자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 언급함
 - 에너지 시장분석업체 넥스트 배럴(Next Barrel)은 관세 부과로 인해 원유 판매업체들은 캐나다 및 멕시코산 원유가격을 할인할 것이며, 이로 인해 아시아 정유업체들은 수익성이 향상될 것이라 평가함
- ▶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23년 미국 정유업체의 원유 조달량 중 약 28%가 캐나다 및 멕시코산 원유로, 특히 미국 중서부 지역의 내륙 정유업체들은 캐나다산 원유에 상당히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은 미국 정유업체들이 캐나다 및 멕시코산 원유 대신 WTI 경질 원유를 사용하려고 해도 품질 차이로 대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 분석했으며, 정유 공정의 경제성 및 효율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함
 - 또한 정유업체들의 원유 조달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면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국 정유 시스템의 경쟁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경고함

자료: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trumps-oil-tariffs-a-boost-for-european-and-asian-refiners/>

최영재 연구원

051-797-4608, cyj@kmi.re.kr

유조선 시장, 지정학적 환경 변화 전망

- ▶ 미국의 중국산 제품 관세 부과에 중국은 미국산 원유와 LNG 등에 대한 보복 관세로 대응했고,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불확실한 캐나다 및 멕시코의 원유 수출처가 아시아와 유럽으로 다변화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발표로 인해 이란의 원유 수출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제재 대상 유조선의 운항 중단과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대체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그리고 미국의 가자 지구 장악 및 팔레스타인 주민 영구 이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유조선 시장의 직접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홍해 항로 운항 재개의 영향 역시 크지 않을 것임
- ▶ 최근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대해 선박중개업체 김슨(Gibson)은 중동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VLCC 운항은 감소할 것이며,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수에즈막스선 운항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하였음
 - 중동발 VLCC 운항 감소는 아시아향 원유 수출 증가로 인해 상쇄되고, 특히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아라비아만-유럽 항로의 원유 물동량이 증가하면 수에즈막스선 시장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음
 - 김슨 측은 유조선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불확실성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요인들이 시장 상황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운임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임

자료: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tanker-market-under-geopolitical-pressure-again/>

최영재 연구원

051-797-4608, cyj@kmi.re.kr



2. 건화물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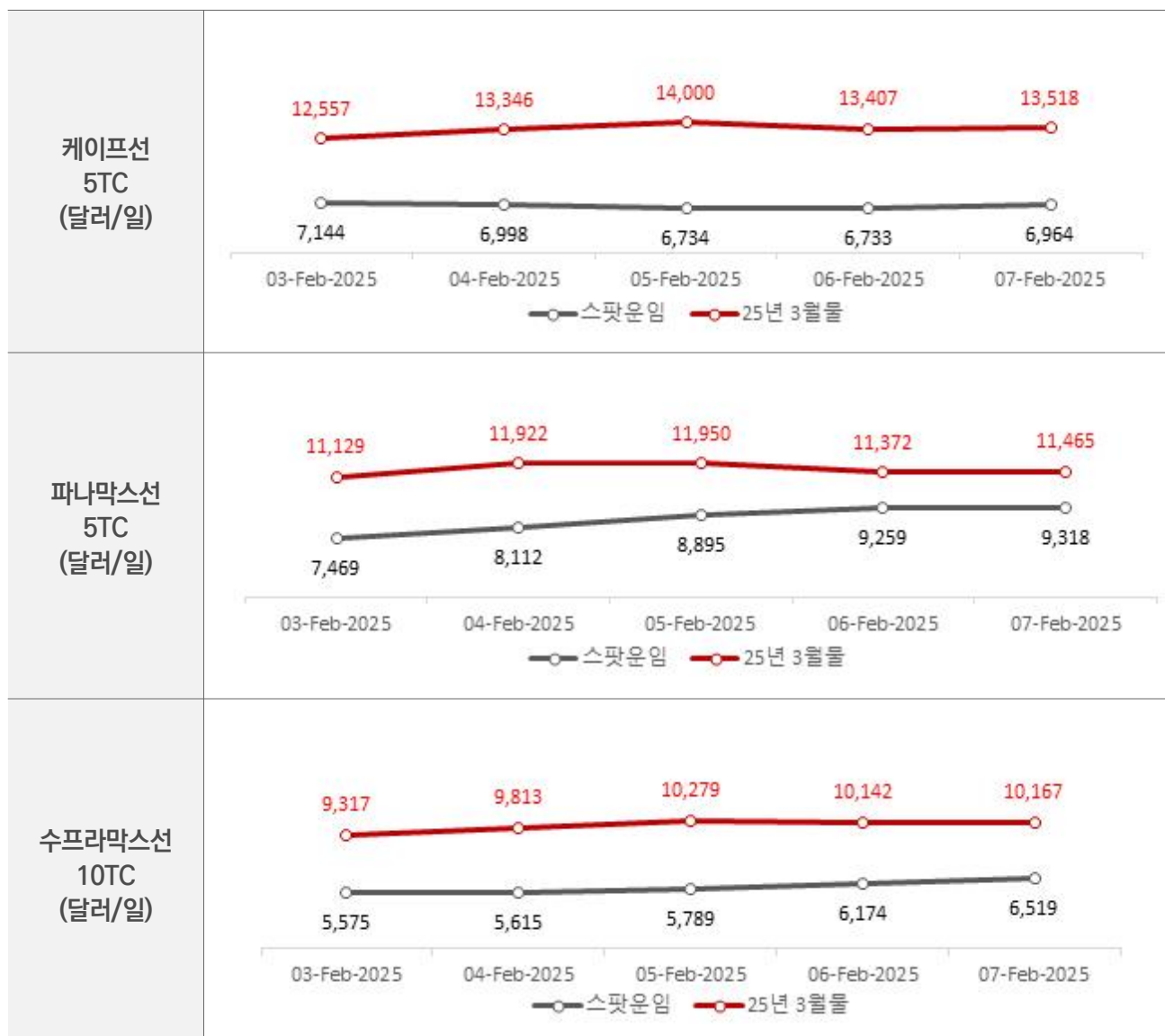
황수진 부연구위원 | zin@kmi.re.kr | 051-797-4635

1 주간평균운임

구분	2월 1주						
	주간평균운임	전주대비차이			2월물 FFA 주간평균가격	전주 대비 차이	
케이프선 5TC (달러/일)	6,915	▼	-519	-7.0 %	13,366	▲	3,963 42.1 %
파나막스선 5TC (달러/일)	8,611	▲	1,726	25.1 %	11,568	▲	2,716 30.7 %
수프라막스선 10TC (달러/일)	5,934	▲	212	3.7 %	9,944	▲	2,478 33.2 %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 상승 ▼ 하락 - 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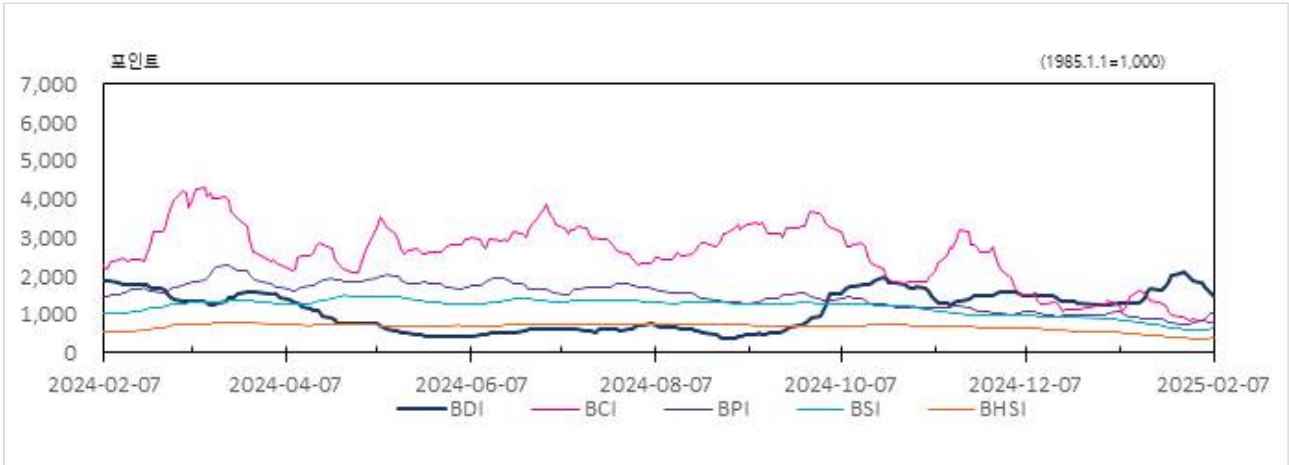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2 시장동향

건화물선 운임지수



자료: Clarkson

건화물선 운임

(운임지수: 포인트, 선형별 운임: 달러/일, 1년 용선료: 달러/일, 선형별 운임 평가치: 달러/일)

		2월 1주	전주 대비	2024년			2023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건화물선 시장(현물) ¹⁾									
선형별 운임	운임지수 BDI	774	▲ 37	976	2,419	1,755	530	3,346	1,378
	케이프(5TC)	6,915	▼ -519	8,945	35,780	22,593	2,246	21,814	11,848
	파나마스(5TC)	8,611	▲ 1,726	8,616	20,757	14,099	7,277	16,669	12,276
	수프라막스(10TC)	5,934	▲ 212	9,637	16,441	13,601	6,874	14,703	10,928
	핸디(7TC)	6,858	▼ -85	10,197	14,537	12,660	7,763	12,703	10,317
1년 용선료	케이프	18,975	▼ -525	18,800	32,000	24,750	13,750	25,125	17,161
	파나마스	13,375	▲ 1,000	12,000	19,575	16,554	12,050	18,750	15,202
	수프라막스	12,625	▲ 250	13,250	18,500	16,737	12,438	18,625	15,131
	핸디	11,000	▼ -125	12,000	15,250	14,064	9,750	15,500	12,512
건화물선 시장(FFA)									
		3월물		2분기물		2026년물		2027년물	
		2월 1주	전주 대비	2월 1주	전주 대비	2월 1주	전주 대비	2월 1주	전주 대비
선형별 운임 평가치	케이프(5TC)	13,366	▲ 3,963	17,816	▲ 899	18,259	▲ 545	18,406	▲ 336
	파나마스(5TC)	11,568	▲ 2,716	12,695	▲ 752	12,067	▲ 396	12,211	▲ 331
	수프라막스(10TC)	9,944	▲ 2,478	11,297	▲ 771	11,019	▲ 459	11,167	▲ 300
	핸디(7TC)	9,561	▲ 1,394	10,988	▲ 688	10,563	▲ 540	10,663	▲ 232

주: 운임지수, 선형별 운임, 1년 용선료는 해당 주 평균값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2 시장동향

원자재 가격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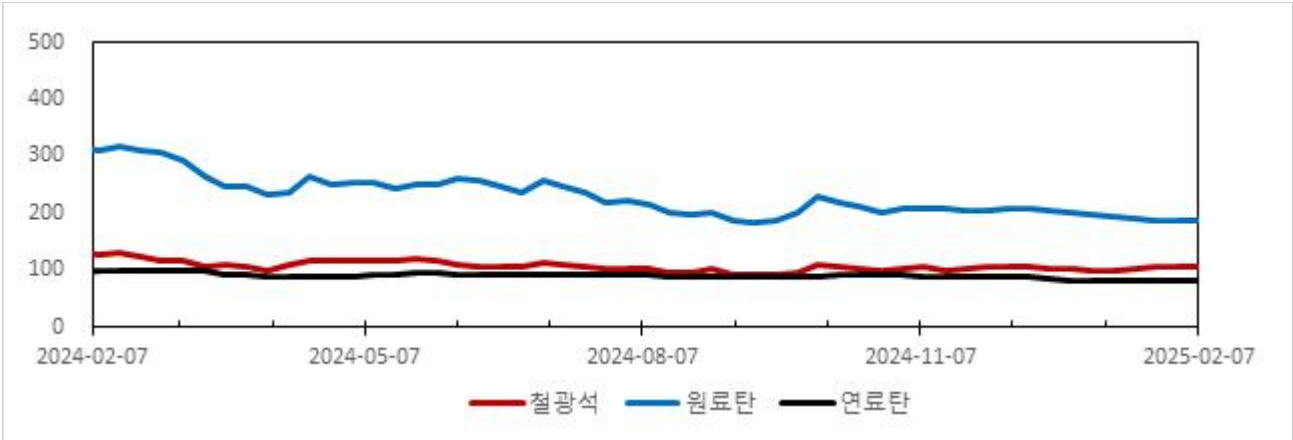
구분	2025년		전주 대비 차이				2024년			
	2월 1주	전주 대비					2월 1주	연평균	최저	최고
철광석	105.2	105.3	▼	-	-	%	127.4	109.7	91.2	142.6
원료탄	186.6	187.0	▼	-0.4	-0.2	%	310.6	242.5	183.6	326.1
연료탄	79.3	79.9	▼	-0.6	-0.8	%	97.1	91.0	82.5	99.3
대두	389.5	384.8	▲	4.7	1.2	%	438.1	405.9	344.9	469.2
옥수수	193.6	191.8	▲	1.8	0.9	%	171.5	167.4	145.2	181.8

자료: Clarkson,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 상승 ▼ 하락 - 혼조

철광석 및 석탄 가격 추세(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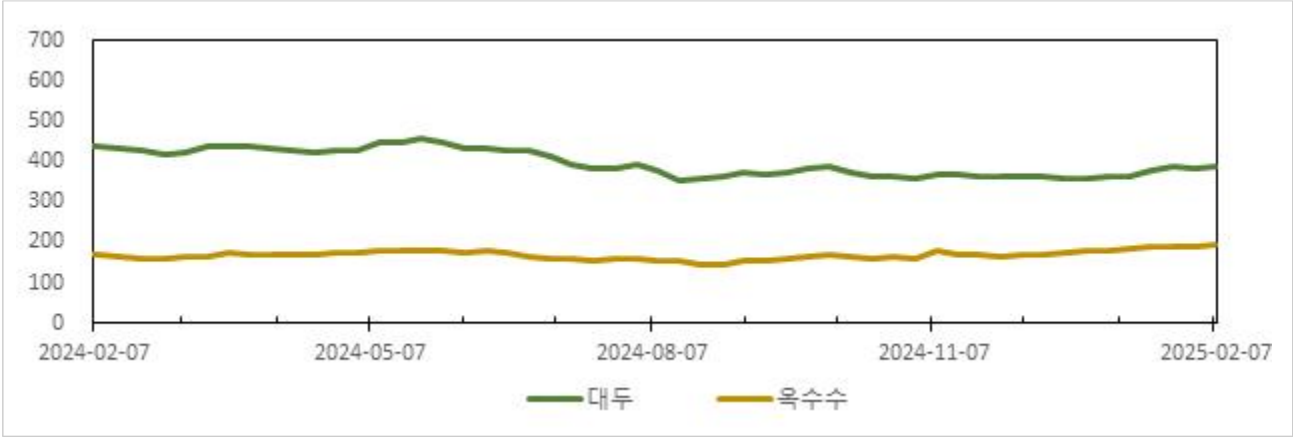
(달러/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한국자원정보서비스 홈페이지

곡물 가격 추세(주간)

(달러/톤)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3 케이프선-동향분석

■ 케이프선

(운임) 케이프선 운임이 전주(1월 5주) 대비 7.0% 하락한 6,915달러/일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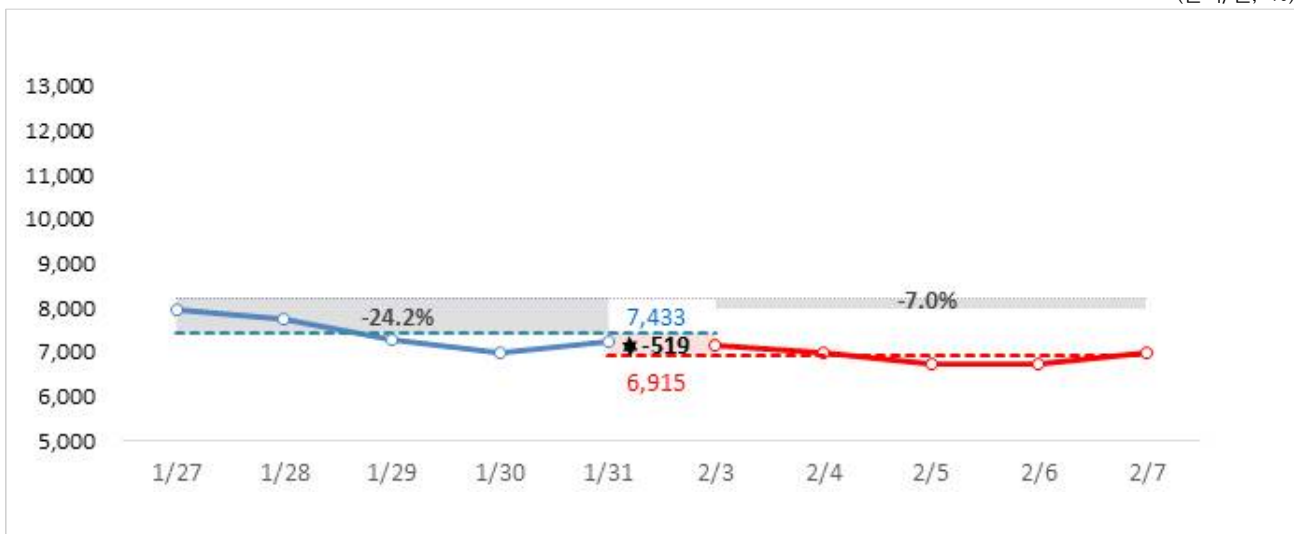
○ 중국 춘절 연휴 이후 수요가 회복되면서 낙폭이 축소되었으나 운임은 낮은 수준을 기록 중임

(동향) 호주, 열대 저기압 시즌 진입으로 철광석 수출에 차질 가능성 제기

○ 로이터에 따르면 1월부터 발생한 열대 저기압으로 인해 철도 운영 중단과 시설 복구 일정 차질 등으로 항만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철광석 수출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이로 인해 리오틴토사의 1분기 철광석 수출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임

최근 평균운임 차이 비교

(달러/일, %)



자료: Clarkson

케이프선 운임

(BCI: 포인트, 스팟운임, 용선료, FFA: 달러/일)

구분		2월 1주	1월 5주	전주대비차이	
BCI		834	896	▼ -62	-6.9%
스팟운임(5TC)		6,915	7,433	▼ -519	-7.0%
용선료	6개월	18,100	18,375	▼ -275	-1.5%
	1년	18,975	19,500	▼ -525	-2.7%
	5년	18,700	18,500	▲ 200	1.1%
FFA	3월물	13,366	9,403	▲ 3,963	42.1%
	2분기물	17,816	16,917	▲ 899	5.3%
	'26년	18,259	17,714	▲ 545	3.1%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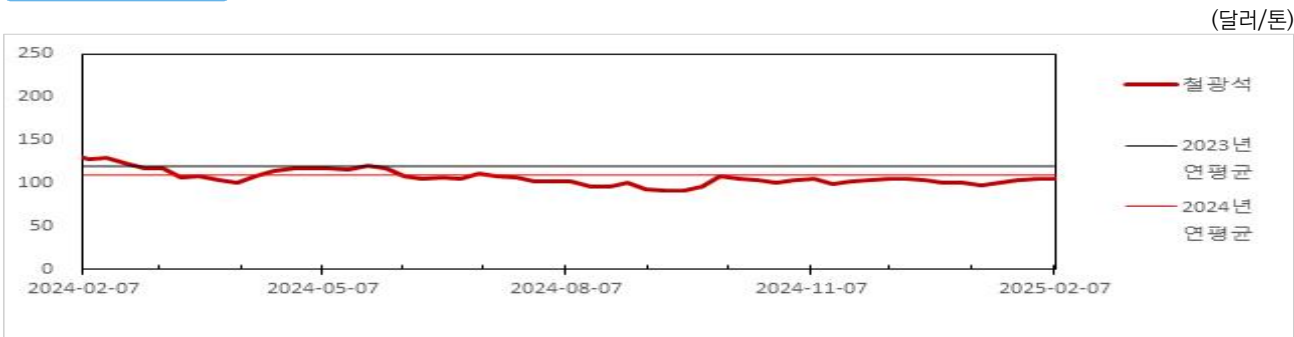
▲ 상승 ▼ 하락 - 혼조



3 케이프선-동향분석

철광석 가격 : 전주와 같은 수준 기록

철광석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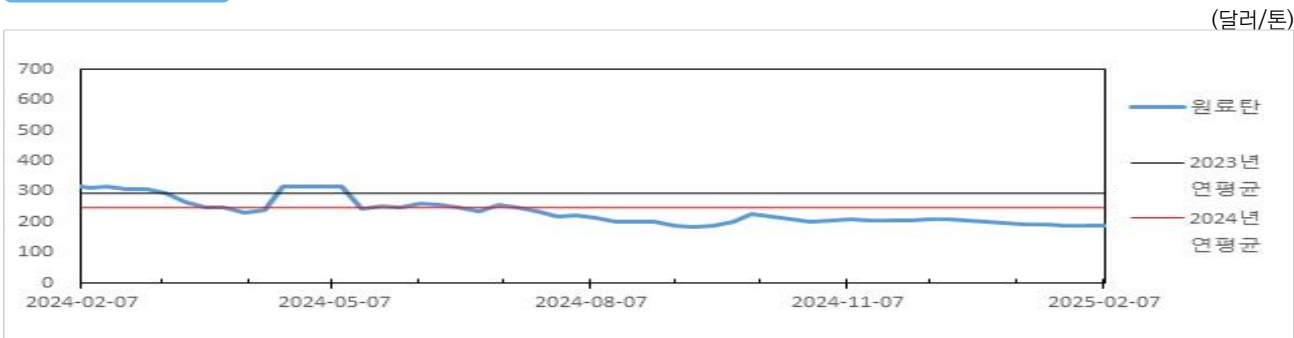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달러/톤)			
구분	철광석 가격	전주대비차이			
1월 3주	101.0	▲	3.9	4.0	%
1월 4주	104.3	▲	3.3	3.2	%
1월 5주	105.3	▲	1.0	0.9	%
2월 1주	105.2	▼	-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한국자원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원료탄 가격 : 전주 대비 0.2% 하락한 186.6달러/톤 기록

원료탄 가격 추이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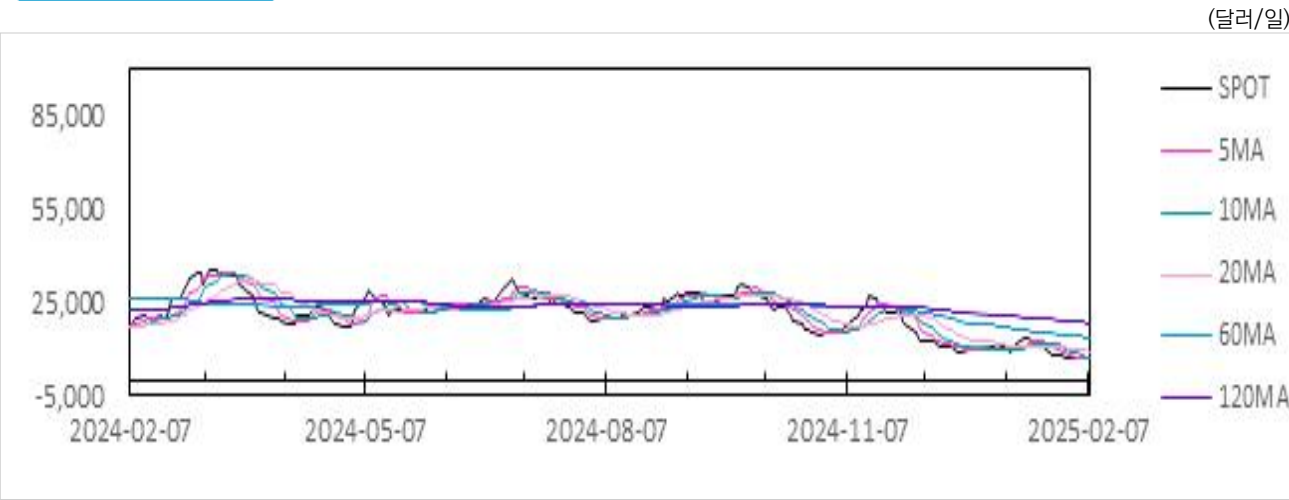
		(달러/톤)			
구분	원료탄 가격	전주대비차이			
1월 3주	191.2	▼	-2.8	-1.4	%
1월 4주	188.0	▼	-3.2	-1.7	%
1월 5주	187.0	▼	-1.0	-0.5	%
2월 1주	186.6	▼	-0.4	-0.2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한국자원정보서비스 홈페이지



3 케이프선-기술분석

이동평균



자료: Clarkson, Baltic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재가공



3 파나막스선-동향분석

파나막스선

(운임) 전주 대비 25.1% 상승한 8,611달러/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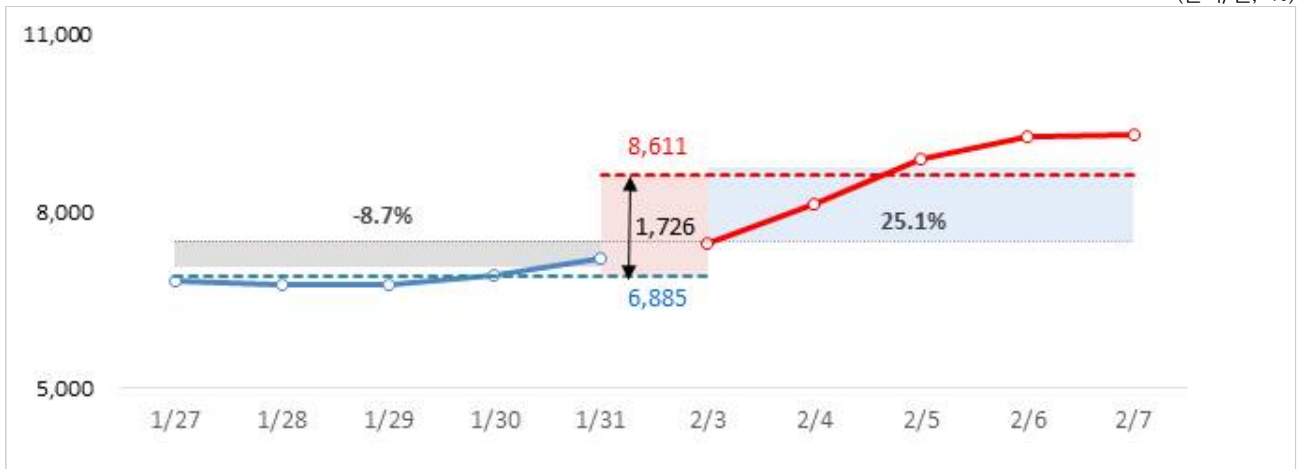
- 시장에 유입되는 곡물과 석탄 등의 물량 증가로 인해 시장의 심리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운임 수준을 기록 중임

(동향) 중국의 곡물 생산량 증가로 인한 수입량 감소

- 중국의 국내 곡물 생산량 증가로 인해 수입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2024년 중국의 곡물 생산량은 7억 65만 톤을 기록하는 등 중국의 곡물 자급률이 증가함
- 로이즈 리스트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의 미국산 곡물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미국산 곡물 수입 감소와 달리 지난해 12월 중국의 브라질 곡물 수입량은 전년 대비 11% 증가하면서 미국산 수입 감소분을 일부 보완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올해 1월부터 브라질산 곡물 수입량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 다만 중기적으로는 미국과 브라질의 곡물 수출 업체들이 보유 곡물 재고 처분을 위한 경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중소형 선박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됨

최근 평균운임 차이 비교

(달러/일, %)



자료: Clarkson

파나막스선 운임

(BPI: 포인트, 스팟운임, 용선료, FFA: 달러/일)

구분		2월 1주	1월 5주	전주대비차이		
BPI		957	765	▲	192	25.0 %
스팟운임(5TC)		8,611	6,885	▲	1,726	25.1 %
용선료	6개월	13,375	12,625	▲	750	5.9 %
	1년	13,375	12,375	▲	1,000	8.1 %
	5년	12,750	12,250	▲	500	4.1 %
FFA	3월물	11,568	8,851	▲	2,716	30.7 %
	2분기물	12,695	11,943	▲	752	6.3 %
	'26년	12,067	11,671	▲	396	3.4 %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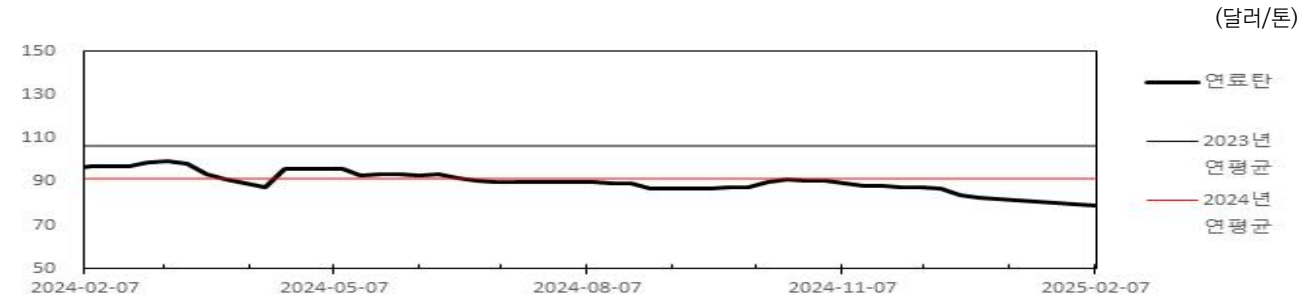
▲ 상승 ▼ 하락 - 혼조



3 파나막스선-동향분석

연료탄 가격 : 전주 대비 0.8% 하락한 79.3달러/톤 기록

연료탄 가격 추이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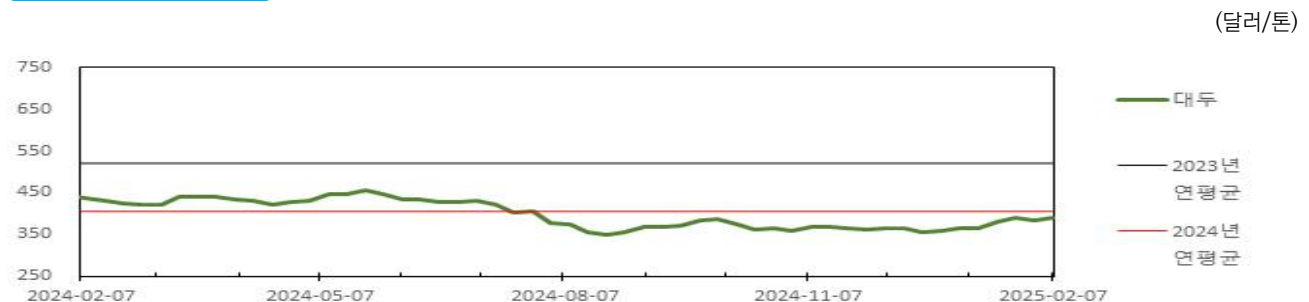


구분	연료탄가격	전주대비차이		
1월 3주	80.7	▼	-0.7	-0.9 %
1월 4주	80.3	▼	-0.4	-0.5 %
1월 5주	79.9	▼	-0.3	-0.4 %
2월 1주	79.3	▼	-0.6	-0.8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한국자원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대두 가격 : 전주 대비 1.2% 상승한 389.5달러/톤 기록

대두 가격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구분	대두 가격	전주대비차이		
1월 3주	380.7	▲	14.9	4.1 %
1월 4주	389.9	▲	9.2	2.4 %
1월 5주	384.8	▼	-5.1	-1.3 %
2월 1주	389.5	▲	4.7	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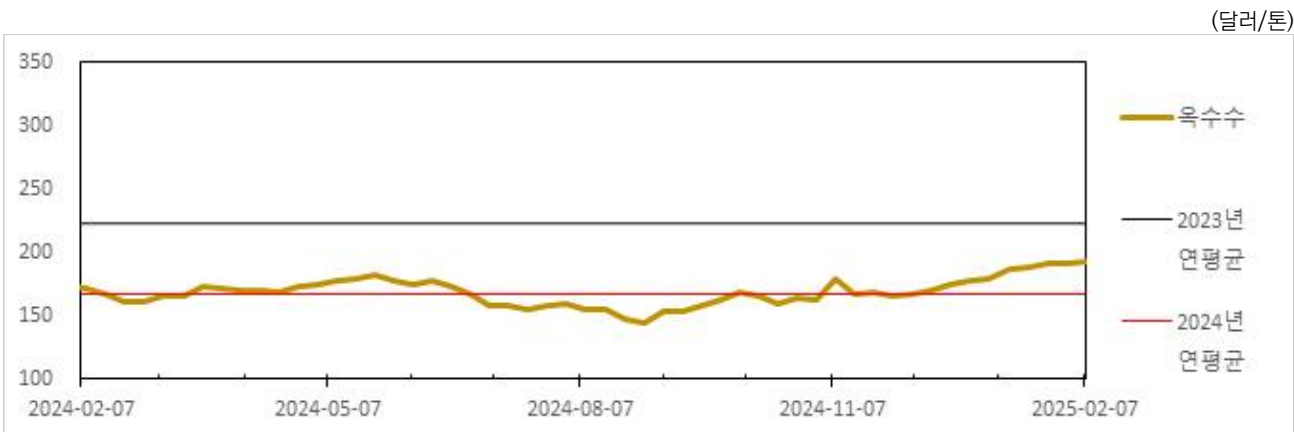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3 파나막스선-동향분석

옥수수 가격 : 전주 대비 0.9% 상승한 193.6달러/톤 기록

옥수수 가격 추이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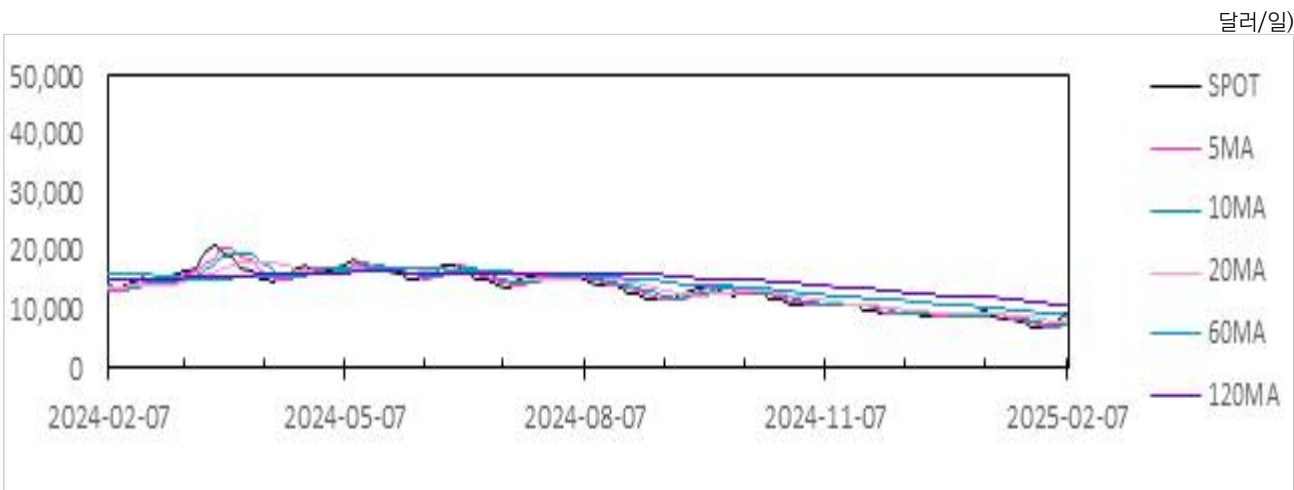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달러/톤)

구분	옥수수 가격	전주대비차이		
1월 3주	188.1	▲ 1.4	0.7	%
1월 4주	192.0	▲ 3.9	2.1	%
1월 5주	191.8	▼ -0.1	-0.1	%
2월 1주	193.6	▲ 1.8	0.9	%

3 파나막스선-기술분석

이동평균



자료: Clarkson, Baltic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재가공



3 수프라막스선-동향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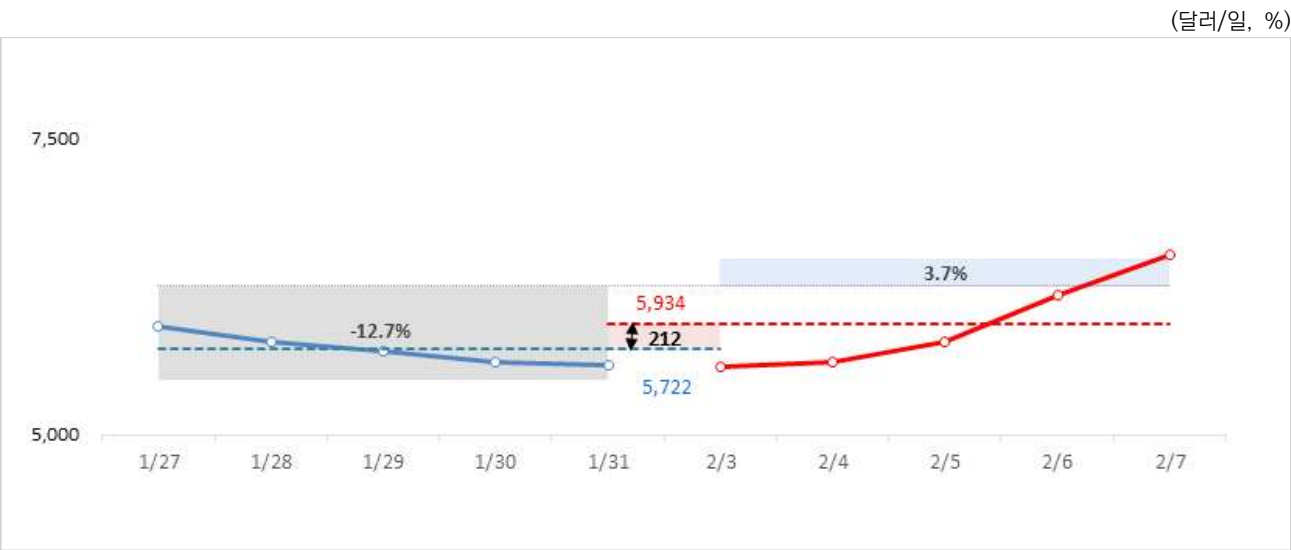
수프라막스선

(운임) 전주 대비 3.7% 상승한 5,934달러/일 기록

(동향) 몽골, 대중국 석탄 수출 확대를 위한 신규 철도 개통 추진

- 외신에 따르면 몽골이 중국과의 신규 철도 개통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됨. 국영 탄광 기업인 에르데네스 타반 톨고이 JSC(Erdenes Tavan Tolgoi JSC)가 철도 건설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을 예정임
- 몽골의 대중국 석탄 수출량은 2022년 타반 톨고이 탄광에서 중국까지 연결되는 철도(240km)가 개통되면서 크게 증가한 바 있음. 철도 개통 이전 몽골의 대중국 석탄 수출량은 3,100만 톤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7,000만 톤, 2024년에는 8,300만 톤까지 증가함. 이번 신규 철도 개통이 완료되면 몽골의 석탄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최근 평균운임 차이 비교



자료: Clarkson

수프라막스선 운임

(BSI: 포인트, 스팟운임, 용선료, FFA: 달러/일)

구분		2월 1주	1월 5주	전주대비차이	
BSI		630	614	▲ 17	2.7 %
스팟운임(10TC)		5,934	5,722	▲ 212	3.7 %
용선료	6개월	11,875	10,875	▲ 1,000	9.2 %
	1년	12,625	12,375	▲ 250	2.0 %
	5년	13,500	13,500	-	- %
FFA	3월물	9,944	7,465	▲ 2,478	33.2 %
	2분기물	11,297	10,526	▲ 771	7.3 %
	'26년	11,019	10,560	▲ 459	4.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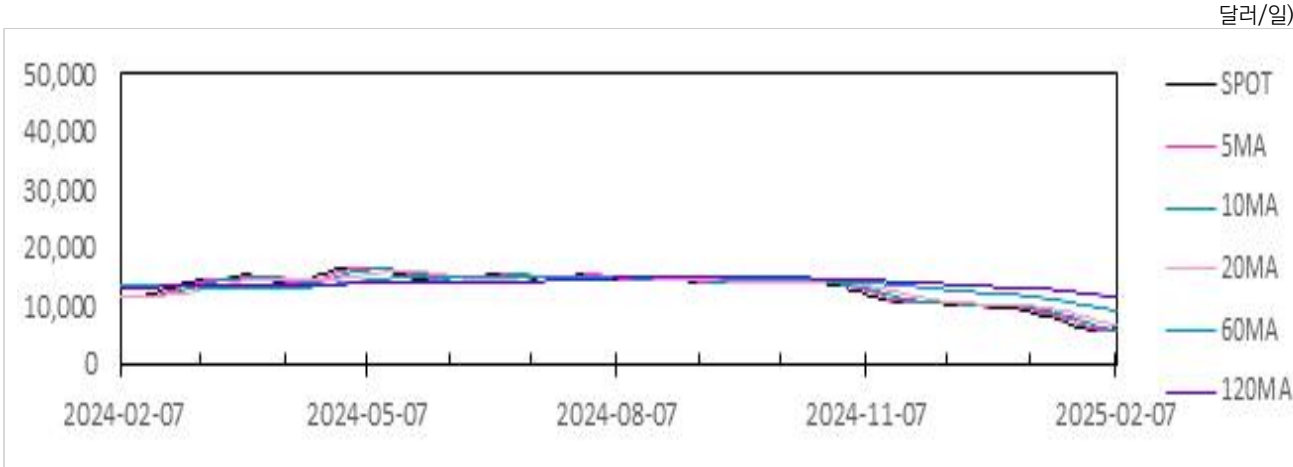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 상승 ▼ 하락 - 혼조



3 수프라막스선-기술분석

이동평균



자료: Clarkson, Baltic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재가공



3. 컨테이너선

김병주 전문연구원 | bjkim17@kmi.re.kr | 051-797-4628

1 동향분석

I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 : 전주 대비 149p 하락한 1,897p를 기록

(운임)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는 지속적인 큰 폭의 하락으로 2천p 이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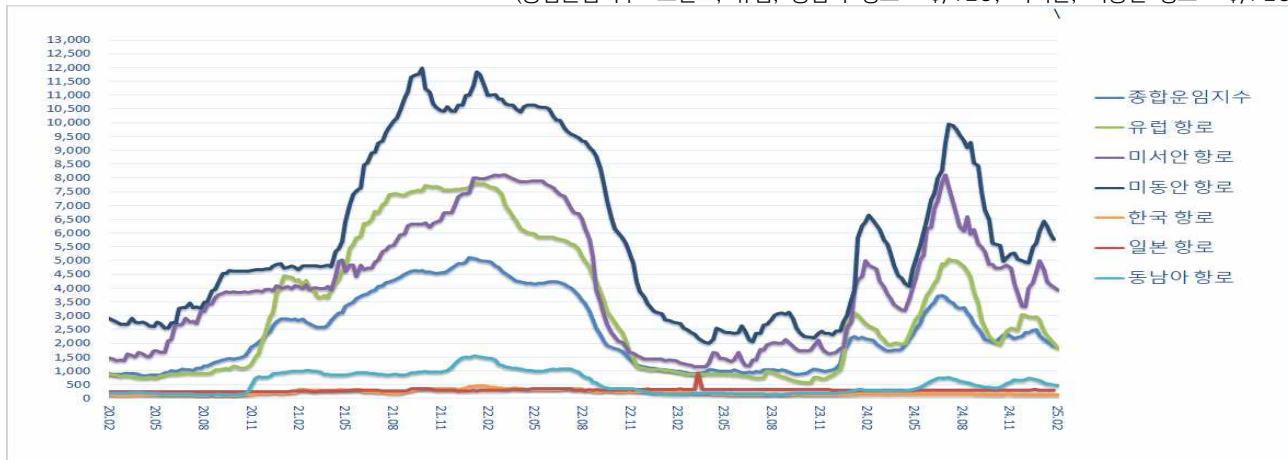
○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는 장기 연휴에 따른 중국발 수요 부진으로 큰 폭의 하락을 기록

(현황)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완화 및 공급 과잉으로 하락세 이어가

- 아시아-북미 항로는 공급 조절에도 불구하고 장기 연휴에 따른 물량 감소로 하락세 이어감. 한편 얼라이언스 재편 과정에서 일부 선박 지연 및 터미널 혼잡이 발생하고 있어 운임 반등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아시아-유럽 항로는 중국 장기 연휴에 따른 부진한 시장 수요 및 얼라이언스 재편 등으로 인한 선사별 경쟁으로 운임 하방 압력을 받고있는 것으로 파악됨

컨테이너 운임지수

(종합운임지수: 포인트, 유럽, 동남아 항로 : \$/TEU, 미서안, 미동안 항로 : \$/FEU)



자료: 상하이해운거래소

컨테이너 운임

(종합운임지수: 포인트, 유럽, 한국, 일본 동남아 항로 : \$/TEU, 미서안, 미동안 항로 : \$/FEU)

		2월 2주	전주대비	2025년			2024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컨테이너선 시장										
운임	종합운임지수	SCFI	1,897	-149	1,897	2,505	2,174	1,731	3,734	2,506
		유럽항로	1,805	-342	1,805	2,851	2,304	1,943	5,051	3,132
		미서안항로	3,932	-184	3,932	4,997	4,392	2,775	8,103	4,987
		미동안항로	5,490	-286	5,490	6,418	5,975	3,931	9,945	6,463
		한국항로	138	-1	138	141	139	138	172	153
		일본항로	308	0	308	317	310	297	316	303
		동남아항로	454	-54	454	655	541	259	753	4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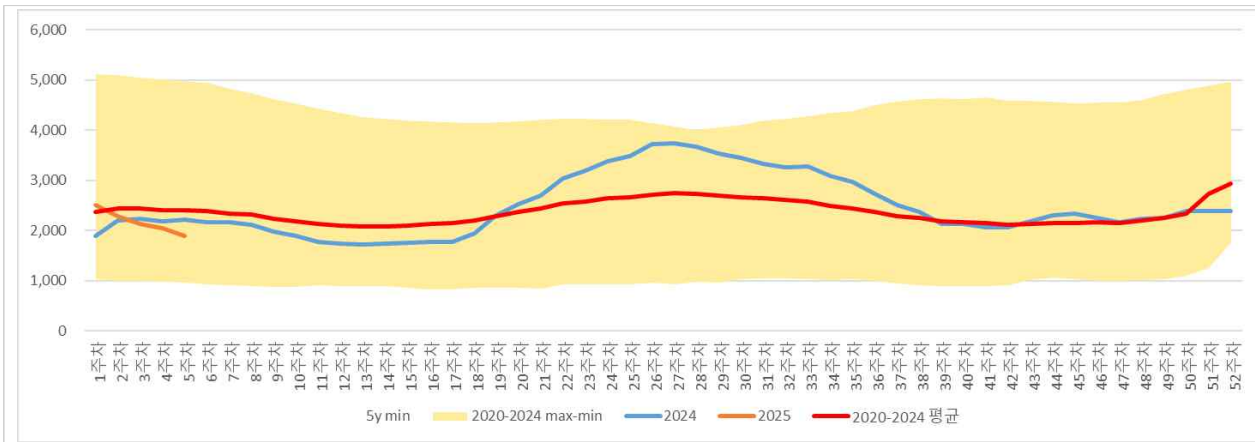
자료: 상하이해운거래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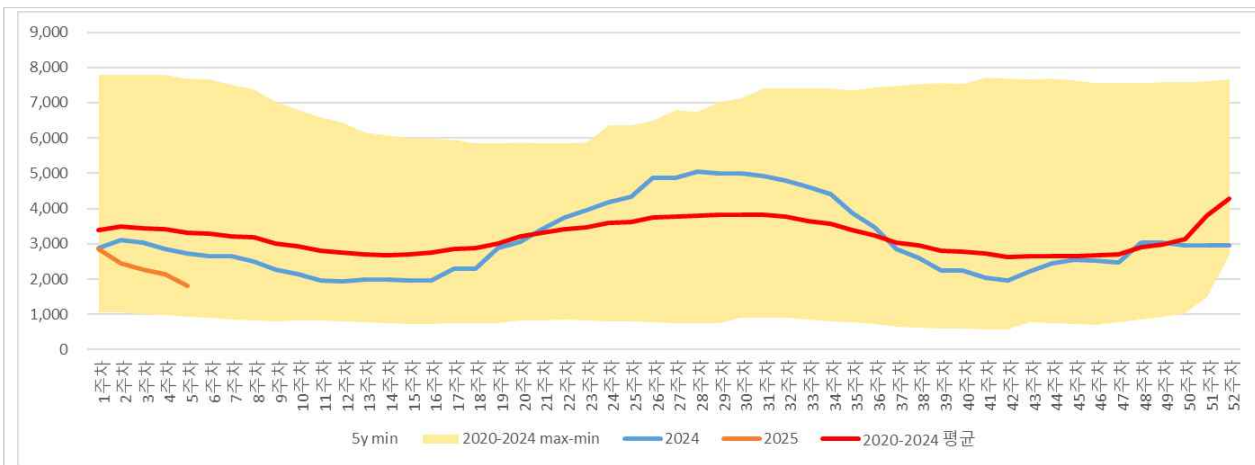
2 운임전망

| 2월 3주('25.2.10~'25.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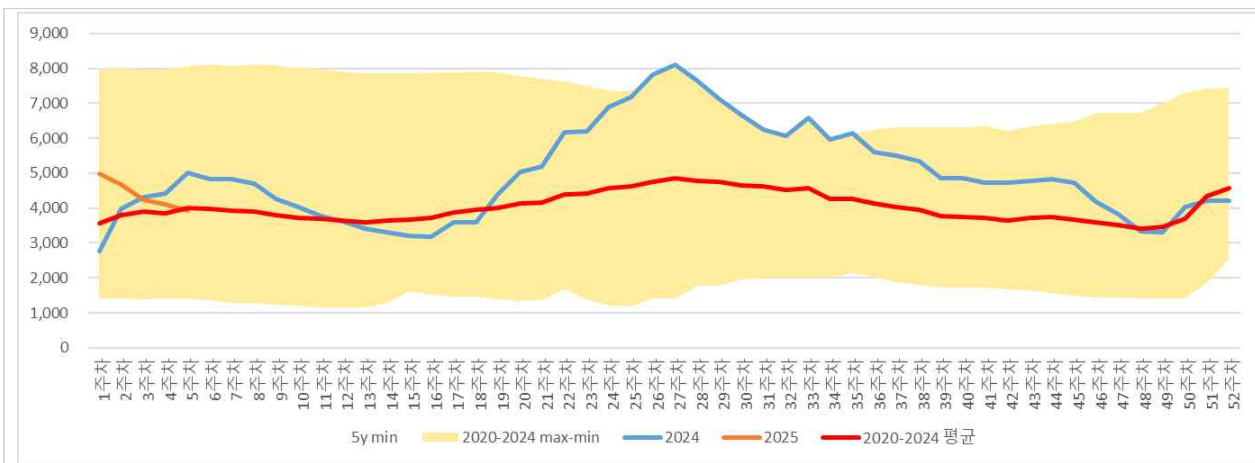
SCFI 지수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



아시아-유럽운임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



아시아-북미운임(서부)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





4. 탱커선

류희영 전문연구원 | hyryu@kmi.re.kr | 051-797-4643

1 유조선-동향분석

■ 유조선 WS(VLCC World Scale) : 금주 유조선 WS는 전주 대비 6.8p 상승한 67.6을 기록함

(운임) 대부분의 항로에서 운임지수(WS)가 상승세를 보임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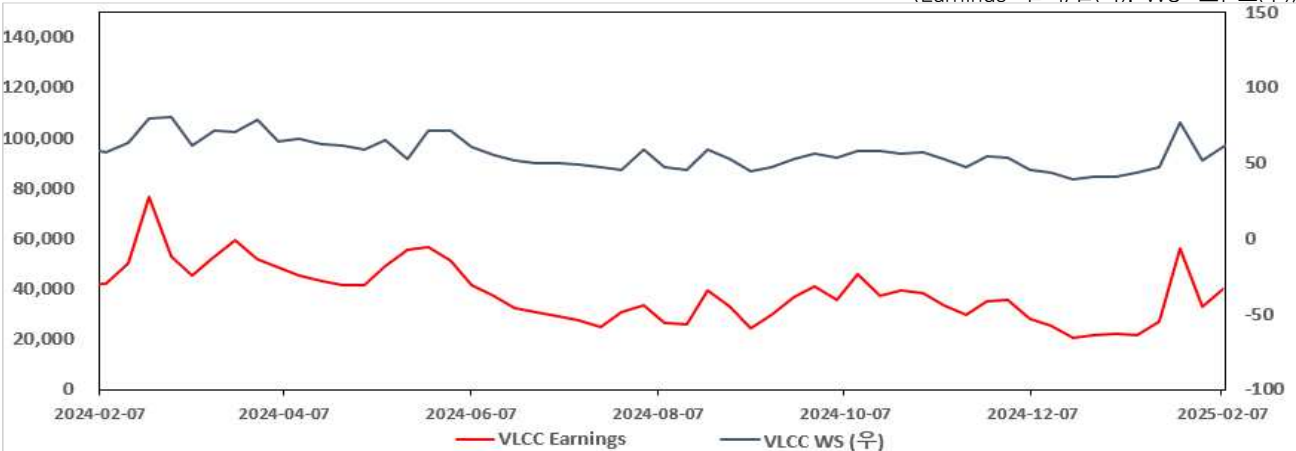
구분	2월 2주(WS)	전주 대비 차이		
중동-중국 항로(TD3C)	67.6	▲	6.8	11.2 %
Ras Tanura(중동) - Loop(미 걸프만) VLCC 280K	35.0	▲	1.0	2.9 %
Ras Tanura(중동) - Ningbo(중국) VLCC 270K	68.0	▲	8.0	13.3 %
Bonny Off(서아프리카) - Ningbo(중국) VLCC 260K	67.5	▲	5.0	8.0 %

(동향) 연휴 이후 성약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며 시황 상승, 신규 물동량 유입에 대한 기대감 반영

- 아시아 지역 연휴 이후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유입되는 물동량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성약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주 VLCC 시황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 지난 3일, OPEC+는 화상회의를 통해 장관급 감시위원회(JMMC)를 개최하여 미 트럼프 대통령의 원유 증산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존 감산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이로 인해 OPEC+는 기존 협의대로 올해 4월부터 점진적으로 산유량을 늘릴 계획이며, 세부적인 증산 계획은 3월 초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VLCC 중동-중국(TD3C) 운임 및 지수

(Earnings: 달러/일(좌), WS: 포인트(우))



자료: Clarkson

유조선 운임

(운임지수: WS, 수익과 용선료: 달러/일)

		2월 2주	전주대비	2025년			2024년		
유조선 시장(현물)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중동-중국	운임지수	67.6	6.8	43.3	77.2	58.3	40	80	57
항로(TD3C)	평균 수익	47,223	13,637	20,781	57,589	37,374	17,598	74,778	20,034
VLCC	1년 용선료	42,500	1,250	35,250	46,500	41,375	37,250	48,500	45,635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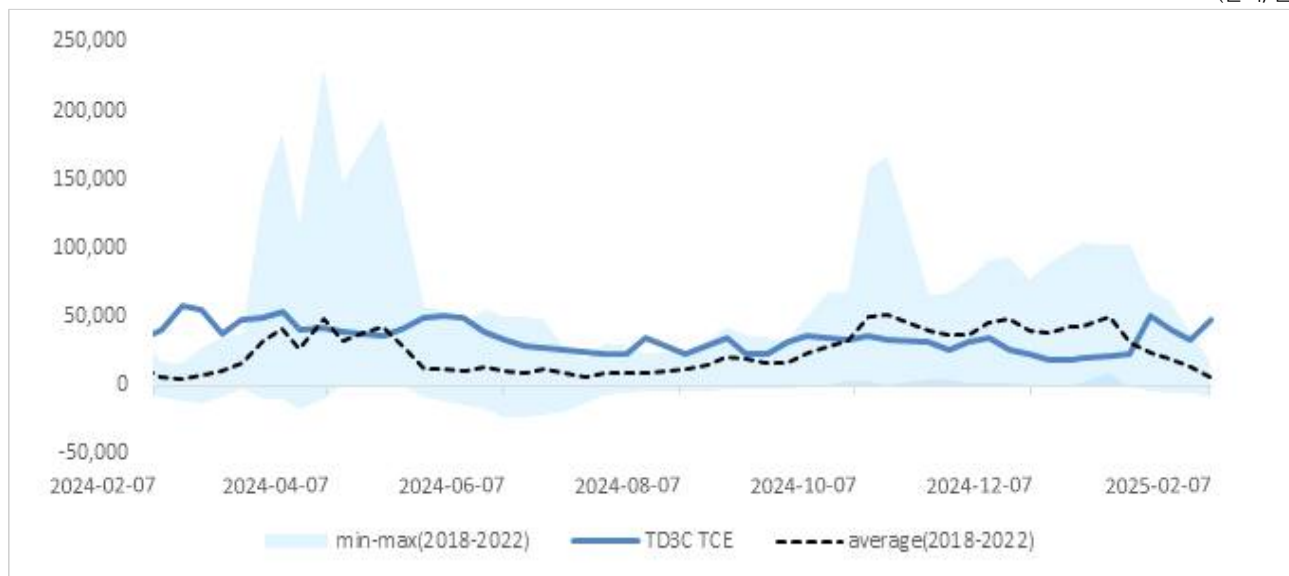


1 유조선-기술분석

중동-중국 항로는 전주 대비 상승 추세를 나타냄

VLCC 중동-중국(TD3C) TCE(Time Charter Equivalent)

(달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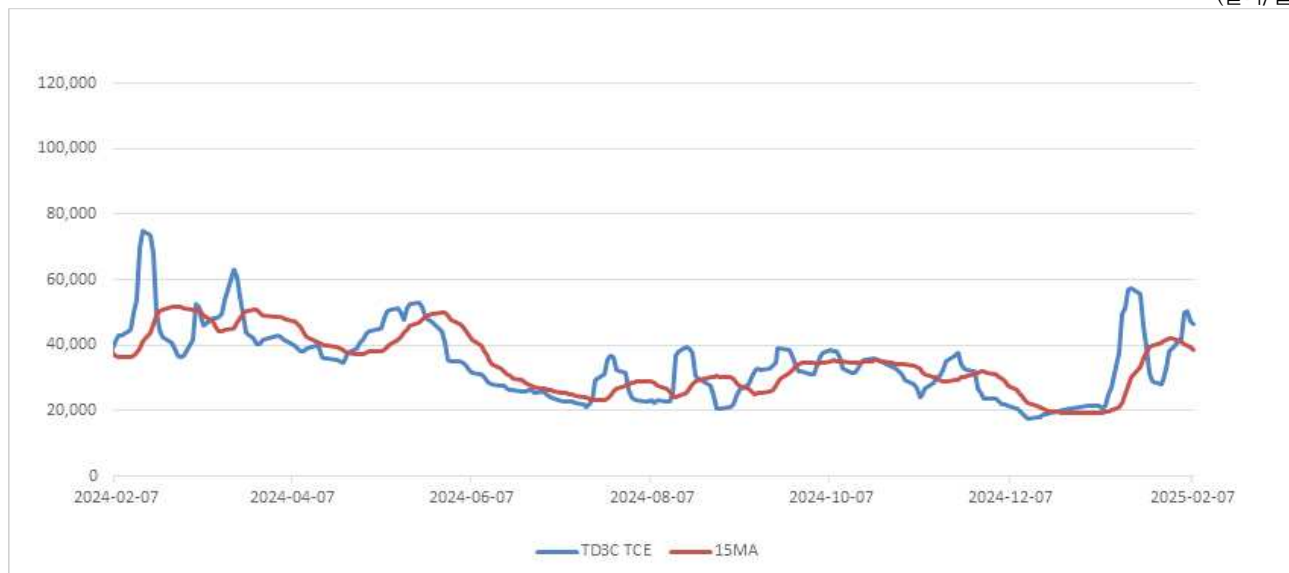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수익 추세선은 점진적인 상승 추세 이후 소폭 하락세를 보임

VLCC 중동-중국(TD3C) 이동평균(MA)

(달러/일)



자료: Clarkson



2 석유제품선-동향분석

■ 석유제품선 WS(MR World Scale) : 금주 석유제품선 WS는 전주 대비 2.2p 하락한 125.7을 기록함

(운임) 대부분의 항로에서 운임지수(WS)가 하락세를 보임

(달러/톤)

구분	2월 2주(WS)	전주 대비 차이		
인도-극동 항로	125.7	▼	2.2	1.7 %
Ras Tanura(중동) - Chiba(일본) 75K(LR2형)	105.0	▼	25.0	19.2 %
Ras Tanura(중동) - Chiba(일본) 55K(LR1형)	120.0	▼	5.0	4.0 %
Ras Tanura(중동) - Chiba(일본) 35K(MR1형)	130.0	▲	2.5	2.0 %

(동향) LR 시황, 석유제품 시장 수요 부진으로 인한 약보합 추세 지속

- LR 시황은 성약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뚜렷한 상승 전환에는 이르지 못하며, 전반적으로 약보합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반면, MR 시황은 아시아 지역 연휴 이후 물동량이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며 회복세를 나타냄
- 향후 미 트럼프 대통령의 화석연료 부활 정책과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정체마진 개선을 통해 석유제품 수요 증가와 물동량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시황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석유제품선 운임 및 지수



자료: Clarkson

석유제품선 운임

(운임지수: WS, 수익과 용선료: 달러/일)

		2월 2주	전주대비	2025년			2024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제품선 시장(현물)									
인도-극동 항로	운임지수	125.7	-2.2	125.7	160.3	136.7	119	348	202
	평균 수익	16,562	690	15,759	22,889	17,824	11,218	59,894	17,134
MR	1년 용선료	19,500	250	18,750	21,500	19,792	19,500	41,750	27,797

주: 인도-극동(Pacific Basket) 항로는 4일 평균(월-목) 사용. 전주비도 동일기간 평균 적용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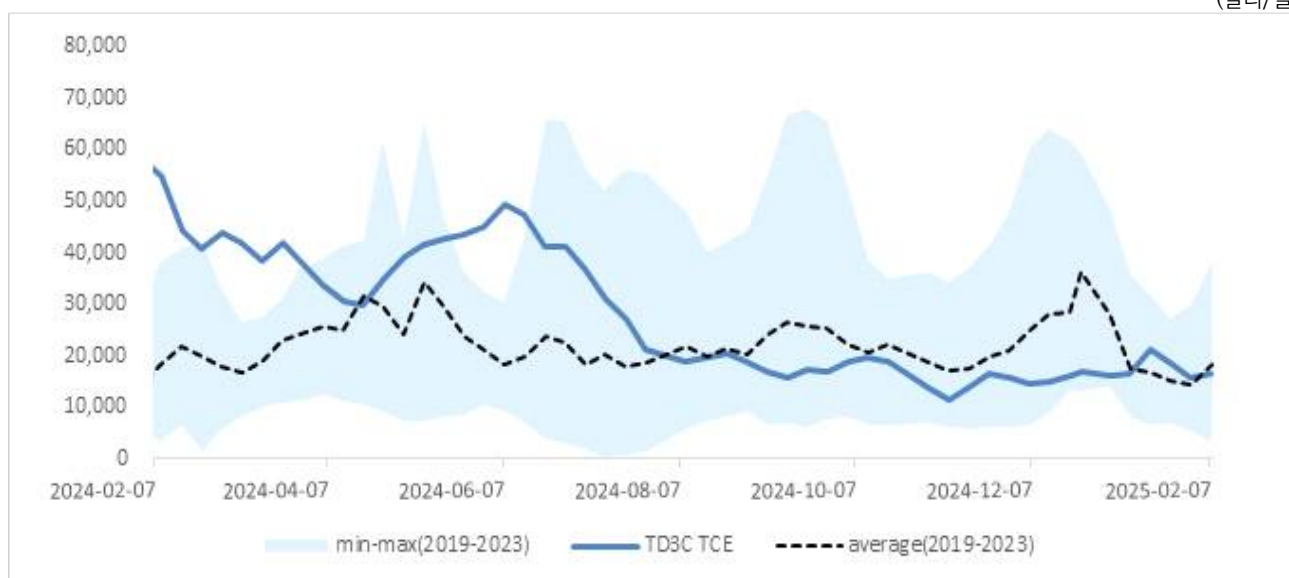


2 석유제품선-기술분석

Ⅰ 수익 추세선은 수요 둔화로 인한 약보합세를 이어가고 있음

MR 인도-극동(Pacific Basket)

(달러/일)



자료: Clarkson

Ⅰ 수익 추세선은 1월 중순 이후 약세를 보이며 하락흐름을 지속하고 있음

MR 인도-극동(Pacific Basket) 이동평균(MA)

(달러/일)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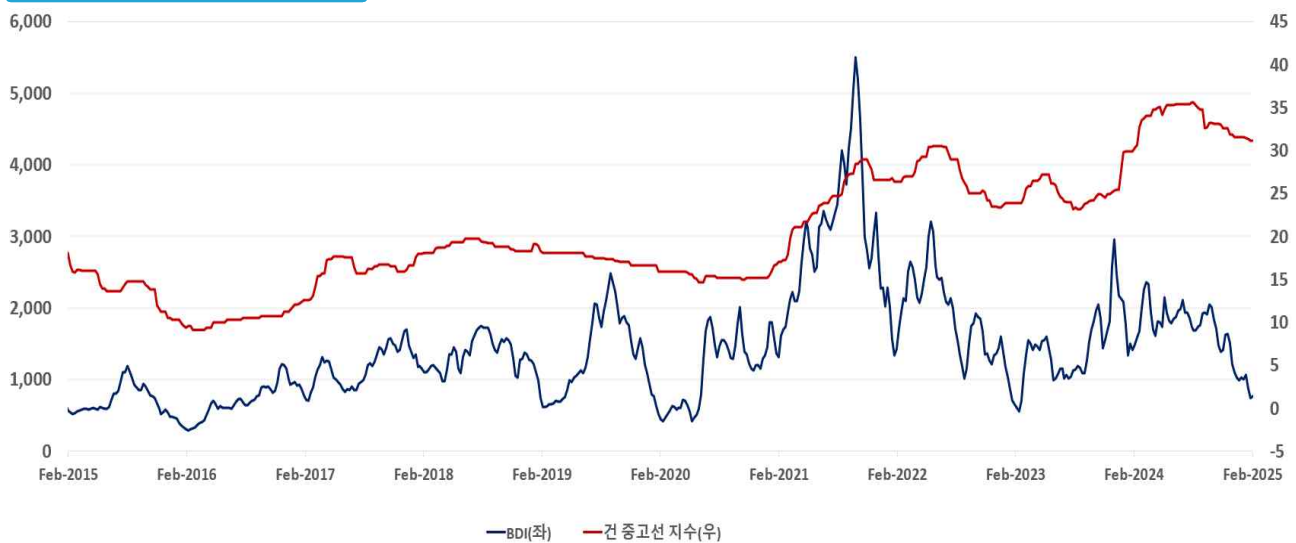


5. 중고선

1 동향분석

■ 건화물 중고선가 지수는 31.2p로 전주와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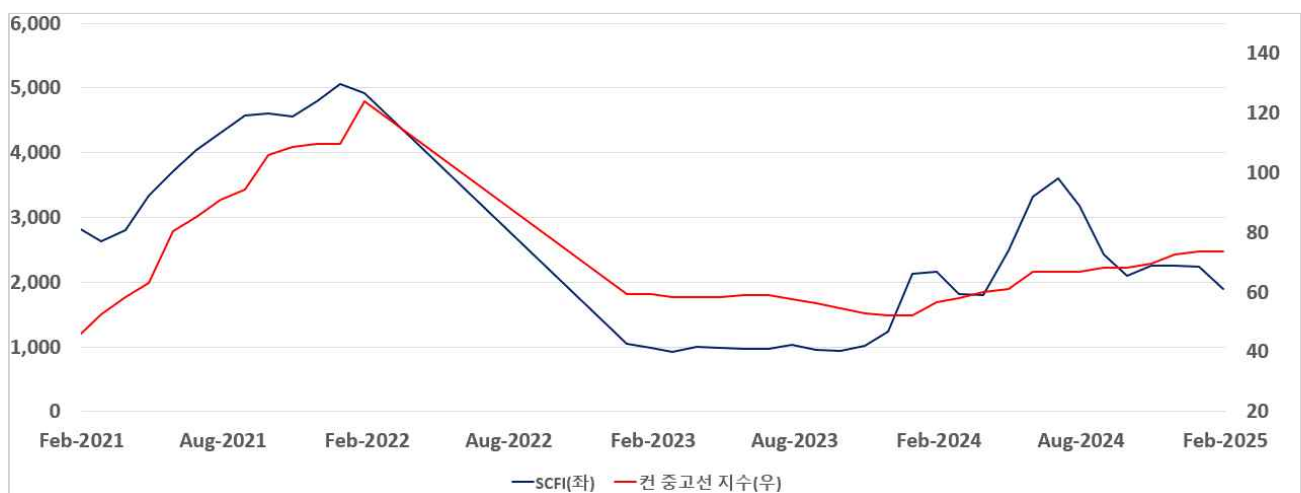
건화물선 운임지수와 중고선 지수



주: 건화물선 중고선지수는 선형별 10년 중고선가를 가중평균하여 계산되었음
자료: Clarkson

■ 컨테이너 중고선가 지수는 73.7p로 전월과 동일함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와 중고선 지수



자료: Clarkson



거래실적				('25.02.01~'25.02.10)				
I 건화물선, 컨테이너선, 탱커선 등 건의 중고선 2건 거래 발생								
선종	선명	건조 년도	선형	단위	매매일자	가격 (백만달러)	매도자	매수자
TankChem	Sunny Star	2010	37,857	DWT	2025-02-06	17.00	MSEA Tankers	Clients of Chemnav Shipmgmt
Bulk	Rose	2008	76,619	DWT	2025-02-05	10.00	Costamare Shipping	Undisclosed interests



주요 해운지표

6. 주요 해운지표

(2025.02.10 기준)

주요 해운지표 추이	금주	전주 대비	2월 평균	2025년			2024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중고선가 (\$ Million)										
건화물선(5년)	Panamax	-	-	-	-	-	-	-	-	
유조선(5년)	VLCC	113	-1	113	113	114	114	106	116	114
컨테이너선(10년)	Sub-Panamax	33	0	33	33	33	33	15	31	25

자료: Clarkson

신조선가 (\$ Million)									
건화물선 Panamax	37	0	37	37	37	37	35	37	36
유조선 VLCC	127	-1	127	127	129	128	128	131	129
컨테이너선 Sub-Panamax	44	0	44	44	44	44	41	44	42

자료: Clarkson

연료유 (\$/Tonne)										
380 CST	Rotterdam	458	-3	458	454	474	464	407	522	471
	Singapore	502	-6	502	476	514	499	439	536	485
	Korea	514	-3	514	501	519	512	475	563	515
	Hong Kong	515	-5	515	489	520	508	456	568	500
VLSFO	Rotterdam	550	1	550	526	553	543	502	615	555
	Singapore	570	-23	570	563	604	583	548	657	610
	Hong Kong	586	-18	586	571	604	591	568	680	620

자료: Clarkson

주요 원자재가 (\$)											
철광석 (\$/Tonne)	국제價	-	-	-	-	-	-	-	-	-	
	중국産				-			-			
연료탄 (\$/Tonne)	국제價				-			-			
	중국産				-			-			
원료탄 (\$/Tonne)	호주산	-	-	-	-	-	-	-	-	-	
	내륙(몽골)	-	-	-	-	-	-	-	-	-	
	중국産				-			-			
곡물 (센트/부셸)	대두(국제)	1,050	8	1,060	992	1,075	1,038	952	1,277	1,101	
	밀(국제)	583	23	577	529	588	552	524	700	578	

자료: mysteel, CBOT

세계 경제권역별 교역액 (\$ Million)									
		1월	2월	3월	2024년 합계	2023년 합계	2022년 합계	2021년 합계	
ASEAN	수출	8,779	8,556		17,335	109,153	124,889	108,826	
	수입	7,475	6,206		13,681	78,027	82,529	67,705	
NAFTA	수출	12,256	11,669		23,925	136,373	130,259	113,907	
	수입	7,487	6,561		14,048	85,103	98,901	87,472	
EU	수출	6,566	6,198		12,764	74,145	74,413	69,576	
	수입	4,798	5,311		10,110	73,009	73,966	71,740	
BRICs	수출	13,137	12,341		25,478	154,149	187,108	194,151	
	수입	14,368	11,549		25,918	168,677	189,991	173,284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1.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음
2.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한 예측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개발 중인 분석모델의 예측결과로서 제공되는 내용임. 향후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하여 모델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임
3. 인공지능 분석을 포함한 본 보고서의 예측결과는 단순한 '참고용' 자료이므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본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이용자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초래된 손실, 손해 또는 기타 법적 의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이 자료를 수령하는 것으로 정보 이용자는 위에 언급된 모든 책임의 한계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